

## 한국노인 상실감 척도 구성 및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정 미 경<sup>†</sup>

이 규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주된 정서의 하나인 상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상실감 척도(K-SSLE)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건강, 관계, 역할, 경제영역이 노년기 상실의 주요 영역임을 확인하고, 이들 영역에 속하는 101개 상실감 관련 1차 예비문항을 수집하였다. 다음, 전문가들의 평정을 통해 81개 2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56개 3차 예비문항을 선정한 후 다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관계, 역할, 경제의 4요인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 31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최종 문항에 대한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 졌다. K-SSLE의 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우울, 스트레스 척도와는 정적상관을, 낙천주의 척도와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 상실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이 확인 되었다. 이로써 K-SSLE는 한국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상실의 문제들과 관련된 감정 상태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만족할 만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노인상실감, 한국노인의 상실감 영역, 척도개발, 타당도

<sup>†</sup> 교신저자 : 정미경,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10-2466-3159, Email : jmk8392@hanmail.net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yff & Singer, 2000).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노년기의 감정 상태를 다루기보다는 이러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김미령, 2002; 이성해, 1997; 허준수, 유수현, 2002; Ada, 2001). 한편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감정 상태와 그 영향을 다루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를 돕기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과 적응의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Wong, 1989). 이와 함께 성공적인 노후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과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은 그 주제들이 신체적인 건강상태의 연구에서 점차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활동으로 넓혀져 가고 있다(김미혜, 신경림, 2005). 현재까지는 노인의 심리적 부적응 중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다루어 왔으나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문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문제(이성해, 1997; 이철우, 2003; 이해원, 2004)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다.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노인들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로 축적되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어 주관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김기분, 이경호, 오혜경, 2001;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특히, 상실의 경험은 노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리적 부적응을 가져다주는데 이것은 노년기의 상실감이나 우울증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한 경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윤진, 1993; Bulter & Lewis, 1982).

현재 국내외 노인의 상실과 상실감에 관련된 연구는 배우자 사별 후의 적응이나 우울과의 관계, 배우자 사별과정의 애도개념에 관한 연구(손의성, 2006; 이미라, 2005; 전길양, 김정옥, 2000; Bankoff, 1993; Morgan, 1989; Laditka & Laditka, 2003; Susan & Mary, 2008),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연구(서현미, 유수정, 하양숙, 2001; 이신숙, 이경주, 2002), 퇴직과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역할상실과 권위 상실감(이춘희, 1993; 임인숙, 2000; Fedderly, 1993) 그리고 사고나 병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상실했을 때의 상실감(박미정, 2007; 서형숙, 1994; 한미숙, 2005)과 고령자의 상실감에 따른 자아통합감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에 관한 연구 등이다.

한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한국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인층을 가족, 직업,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서 고독이나 소외감, 우울, 상실감 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가족 중심과 유교문화를 배경

으로 하는 가족주의와 공동체 위주의 집단주의 성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 노인을 부양하던 풍습이 점차 사라졌고, 이 때문에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상실 혹은 약해졌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의 지원과 경제적인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권위에 대한 상실로도 이어지면서 최근 한국노인들은 그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노인들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형수, 2002).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노인들의 상실감을 다룰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노년기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노년기의 주된 정서의 하나인 상실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상실감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첫째, 선행문헌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들의 상실감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둘째, 한국노인들의 상실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해 본다. 셋째,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노년기의 상실

일반적으로 상실이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는 것,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08). 상실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보면 가정, 일, 지위, 신체, 삶 등과 같이 가치

를 가지는 것이 변화되거나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잠재적 또는 실질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Gruendemann, 1981; 서형숙, 1994에서 재인용).

노년기 상실과 노인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김만두와 한혜경(1993)은 노인 상실과 관련된 노인문제를 심신기능의 쇠퇴, 소득상실, 역할과 지위 상실, 사회심리적인 소외와 고립으로 설명하였고, 최성재와 장인협(1987)은 역할 축소, 경제적인 빈곤, 신체적인 쇠약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고독과 외로움으로, 전길양, 송현애, 고선주, 김일명(2000)은 질병, 고독감, 경제적 빈곤, 역할상실로, 김태현(1994)은 빈곤, 병고, 고독, 무위(직업)로, 최순남(1997)은 빈곤, 병고, 무위로 그리고 이성해(1997)는 경제적, 역할상실, 사회 심리적 소외와 고독, 여가생활, 건강문제로 설명하였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영역을 종합해보면 건강, 역할, 경제, 관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각 영역의 상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건강의 상실을 경험한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모의 변화이며 외적인 변화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아상에 타격을 주게 된다(김애순, 2006).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생리적 노화를 억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건강기능의 쇠퇴는 노인을 모든 면에서 소극적으로 만들고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둘째, 노인들은 역할의 상실을 경험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에 묶여 직업생활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심리적 기능들

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좌절을 겪게 된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연장자로서의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상실은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게 만들고 사회적 가정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여(홍상욱, 1997; Lenon, Bengtson, & Peterson, 1972) 인생에 대한 회의와 후회만이 있는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만든다. 셋째, 노인들은 경제적 상실을 경험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강제 정년을 비롯해서 노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노인들의 수입원은 사라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인 미덕으로써 가족과 자녀가 노인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나 산업사회의 다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의하여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우리사회의 노인부양의 미덕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서상철, 1998)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인들은 경제적 기능의 상실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소홀함에서 오는 기대감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노인들은 관계의 상실을 경험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사회활동의 폭이 좁아지는 노인에게는 관계상실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다(김영범, 박준식, 2004).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윤현희, 1994)가 있으나 노인들은 경제적 및 건강상의 이유만으로도 기존의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며 또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다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적

무력감과 소외감을 더욱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관계상실부분은 중요하다(김태현, 2002). 이처럼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은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 노년기의 상실감

노인들이 경험하는 상실은 상실감을 낳는다. 즉, 상실로부터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상실감으로 이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네이버국어사전, 2008). 상실감은 다양한 감정이 드는 복합적인 감정상태로 무력감, 슬픔, 분노, 불안, 우울, 좌절, 식욕상실, 심계항진, 살망감, 실패감, 울기, 수면장애, 물질사용 등 느낌, 신체적 감각, 인지, 행동의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반응이 포함된다(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에서 재인용; Worden, 1991). 한편, 자궁절제라는 신체적인 상실경험을 한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상실감 척도를 개발한 김숙남(1998)에 의하면 상실감은 ‘힘이 든다, 자신이 없다, 서글퍼진다, 억울하다. 미련이 남는다, 창피하다, 걱정이다’ 등등과 같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들이 겪는 건강이나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관계변화로 인한 고독이나 소외감, 상실감은 노인에게 피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며 노년기에 발생하는 노인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기질적인 부분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박선아, 1997).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심리적 부적응으로 축적된다면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배우자 사별은 대표적인 상실경험이다. 이는 단순한 삶의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경험이며(Schuchter & Zisook, 1993), 상실감과 직결된다(김승연, 2006; 윤현희, 1994). 또한 사별의 영향은 사별 이후 기간과 관련되는데(Bankoff, 1993; Morgan, 1989), 우리나라 노인 사별자의 경우 5년을 전후해서 사별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는 전이 단계로 나타났다(정은, 1994). 따라서 사별은 기간에 따라 건강, 관계, 경제, 역할과 같은 영역의 상실감에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영역과는 다른 차원의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별은 경험 유무에 따른 특별한 문제이지만 여타의 영역은 일반적인 노인연령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실감인 것이다. 즉, 노년기에는 누구나 적지 않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상실감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상실경험 뿐 아니라 상실감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인들의 다양한 상실감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실감의 영역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문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노인들의 심리적 곤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방 법

### 예비 문항 개발

한국노인의 상실감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노인의 현 상황과 노인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실에 관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한국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실감 영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노인들은 경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가정 사회적 역할에서의 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 박사과정 4명과 교육 현장 석사급 연구원 3명이 참여하여 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노인들의 상실감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총 101개의 1차 예비문항을 수집하였다. 둘째, 101개의 1차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연구진은 수집된 문항을 검토하여 하위 구성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장을 적절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박사과정 4명, 그리고 노년기의 교육학자 1명이 각 문항이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한국문화에 적절한지 등을 평정하였다. 그 결과 4영역 81개의 2차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 예비문항검토를 위한 예비조사

#### 측정도구 및 방법

노인 상실에 대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노인들의 상실감에 관한 2차 예비문항들(81개)이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상실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대상자는 남자 18명(60%), 여자 12명(40%)이었고 연령은 60대 9명(30%), 70대 17명(57%), 80대 4명(13%)이었다. 학력은 무학 3명(10%), 초등졸 10명(33%), 중졸 12명(40%), 고등졸 이상 5명(17%), 결혼 관계 유지는 24명(80%), 사별은 4명(13%), 기타 2명(7%)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었다.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분정도였고 설문이 끝난 후 각자에게 설문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는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여자들은 내용이 노인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었고 문장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었다는 피드백을 하였다.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 문항분석결과

문항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상대도수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문항(한 번호에 65% 이상 응답된 경우) 2문항,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은(3이하) 3문항,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높은(.7이상) 20문항에 해당되는 총 25문항을 제외한 56개의 3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문항의 내용이 한국노인에게 적절한지를 연구자들과 교육학 박사과정생들이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56문항을 선정하였다.

#### 예비문항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노인복지관과 양로원을 이용하는 인지능력이 양호한 60세 이상 노인들이었다.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8년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300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과 무응답을 제외한 205명이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 한국노인의 상실감 3차 예비문항 척도.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3차 예비문항(56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건강상실감 14문항, 관계상실감 18문항, 역할상실감 7문항, 경제상실감 7문항으로 나뉘어진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감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건강상실감이 .94, 관계상실감이 .94, 역할상실감이 .86, 경제상실감이 .91이었다.

**우울.**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esavage, Briank 그리고 Lum(1996)이 개발한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단축형을 기백석(1996)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으며 정미경(2006)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역치문항(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끼니까?, 당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205

특성	항목	빈도(%)	특성	항목	빈도(%)	
성별	남	104(50.8)	돈벌이	하고 있다	69(32.6)	
	여	101(49.2)		안한다	136(67.4)	
연세	60대	86(42.1)	동거자	부부	81(40.8)	
	70대	97(47.7)		부부와 자녀	44(21.5)	
	80대	22(10.2)		혼자	42(20.9)	
학력	무학	24(11.7)	동거자	딸네	23(11.0)	
	초등졸	45(22.3)		아들네	7(2.6)	
	중졸	57(27.9)		시설	8(3.1)	
	고졸	49(24.4)				
	대졸이상	21(10.2)				
결혼상태	기혼/동거	137(66.8)	경제형편	부유한 편	11(4.1)	
		58(28.3)				
		0-5년		22(10.7)		
	사별	6-10년		23(11.2)	보통	120(59.8)
	및	11-15년		10(4.9)		
	사별기간	15년 이상		3(1.5)		
		별거		6(2.9)	어려운 편	74(36.1)
		이혼		4(2.0)		

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까?,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낍니까?)이 있고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이었다.

**생활 스트레스.**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척도는 윤현희(1994)의 노인의 스트레스 척도를 참고로 하여 이신숙과 이경주(2002)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가족관계요인 7문항, 사별상실요인 2문항, 건강문제요인 4문항, 경제문제 요인 5문항, 주거문제요인 3문항으로 나뉘어진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었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가족관계요인 .80, 건강문제요인 .64, 경제문제요인 .81, 주거문제요인 .52, 사별상실요인 .60이었다. 김정엽과 권복순(2007)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가족관계요인 .70, 건강문제요인 .71, 경제문제요인 .91, 주거문제요인 .73, 사별상실요인 .69이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가족관계요인 .85, 건강문제요인 .72, 경제문제요인 .89, 주거문제요인 .88, 사별상실요인 .69이었다.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로서의 낙관주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er 그리고 Bridges(1994)가 개발한 Life Orientation Test-Revised를 신정원(2002)과 김현정(200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에 관한 것이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개발당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이었으며 3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고 높은 점수는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낮은 점수는 비관주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선녀(2006)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66이었다

#### 자료분석

한국노인들의 상실감의 영역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한국노인의 상실감 척도 문항을 추출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SSLE의 타당화에 대한 작업으로 우울, 생활 스트레스, 낙천주의와 관련된 측정도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한국노인들의 상실감 척도(K-SSLE)의 요인 분석

한국노인들의 상실감 척도(K-SSLE; Korea-The Scale of Sense of Loss for Elderly)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56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측정 변인들의 특성 및 연구주제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적어도 몇 개 정도의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인수를 결정하고 분석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홍세희, 1999). 따라서 본 연구자는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정하고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 지표를 검토한 결과 KMO = .90이고 Bartlett's의 구형성 검증 통계값이 4554.39(990),  $p < .01$ 로 요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제, 2007).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 > 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6개가 존재하여 3, 4, 5, 6요인으로 각각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3, 5, 6요인은 혼합된 factor loading으로 적절치 않은 결과가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표 2. 한국노인의 상실감 척도 56개 예비문항의 6 요인의 고유치, 변량백분율 및 누적백분율

요인	고유치	변량 %	누적 %
1	21.05	37.59	37.59
2	4.75	8.48	46.06
3	3.39	6.05	52.12
4	2.00	3.57	55.68
5	1.45	2.60	58.28
6	1.23	2.20	60.48

문헌조사를 통하여 본 척도가 4개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Scree검사로 요인수를 파악한 결과 4개의 주요 요인이 존재하였기에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하였다. 4개의 주요인은 전체변량의 55.68%를 설명하였고 표 2에 나타내었다.

문항추출을 위해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하지 않은 문항 제거를 위한 기준은 첫째,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 둘째,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25 이상인 문항(Pett, Lackey & Sullivan, 2003) 셋째, 전체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에서 .30미만인 문항 넷째,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요인의 총점 간의 상관이 .30 미만인 문항이다(성태제, 2002; 엄한주, 2001; 한소영, 신희천, 2006에서 재인용).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 21문항을 제거하고 건강상실감 문항 13개, 관계상실감 문항 10개, 역할상실감 문항 7개, 경제상실감 문항 5개로 총 35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35문항을 다시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식으로 회전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며 그 차이가 적은 double-loading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 31문항을

재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의 62.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변량의 23.86%를 설명하는 요인 1은 건강상실감이었으며 고령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관계상실감으로 전체변량의 15.83%를 설명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의 감소와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경제상실감으로 고령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없어진 수입원으로 인한 감정 상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변량의 13.72%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역할상실감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감소되어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전체변량의 9.41%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3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최종 선발된 문항들은 표 3에 제시하였다.

#### K-SSLE의 신뢰도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에 따라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적신뢰도(Cronbach- $\alpha$ )는 전체문항이 .95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에서는 .81~.94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의 총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상관을 구한 후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8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78~.93로 나타났다.

표 3. 한국노인의 상실감 척도 31문항과 요인별 부하량

구성개념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건강	1	체력저하로 삶에 대한 의욕이 저하된다	.767	.214	.139	.227
	2	기운이 없어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화가 난다	.755	.148	.135	.317
	3	체력저하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 속상하다	.748	.201	.117	.233
	4	가끔 나쁜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	.740	.309	.113	.070
	5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735	.354	.170	.013
	6	움직일 때나 일할 때 신체적인 노화현상이 나타나서 속상하다	.722	.204	.185	.292
	7	아픈 곳 투성이인 내가 싫다	.699	.044	.175	.122
	8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느낌이다	.694	.031	.100	.330
	9	건강했던 옛날이 그립다	.690	.163	.241	-.046
	10	외모가 늙고 변해가면서 자신감이 없어진다	.638	.287	.196	.153
	11	체력이 떨어졌음을 느낄 때 슬프다	.605	.207	.373	.097
	12	이동을 할 때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563	.197	.238	.312
관계	1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우습게 볼까봐 긴장하게 된다	.202	.749	.147	.046
	2	가족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종종 무시한다	-.012	.735	.000	.175
	3	젊은이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느낌이 든다	.349	.667	.182	.021
	4	때때로 노인 취급당하는 게 싫다	.323	.664	.033	-.054
	5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낀다	.239	.652	.005	.249
	6	가족이외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281	.599	.166	.266
	7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121	.567	.106	.479
	8	자녀들을 찾았을 때 반기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212	.563	.131	.394
	9	나를 찾아주고 불러주던 사람들이 이전 나를 잊은 것 같다	.125	.541	.208	.412
경제	1	소득이 줄어서 무력감에 빠져들게 된다	.190	.097	.880	.110
	2	최근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 고달프다	.288	.175	.808	.192
	3	경제소득이 없어서 위신이 안선다	.136	.142	.802	.066
	4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없어서 속상하다	.223	.085	.781	.244
	5	지출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게 불편하다	.283	.064	.707	.156
역할	1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다	.234	.287	.209	.742
	2	요즘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	.212	.308	.096	.715
	3	성행위가 예전만 못해서 좌절을 느낀다	.382	-.023	.226	.595
	4	노인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렵다	.120	.402	.206	.506
	5	직장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퇴출당하게 되어 억울하다	.390	.220	.225	.498
부하자승값		6.92	4.59	3.98	2.73	
설명변량비율 (전체 62.82%)		23.86	15.83	13.72	9.41	

표 4. 한국노인의 상실감 척도 신뢰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Cronbach's $\alpha$	반분신뢰도
건강	12	34.61(8.34)	.94	.93
관계	9	26.02(7.00)	.88	.84
경제	5	17.41(4.73)	.90	.83
역할	5	15.96(4.30)	.81	.78
전체	31	23.50(6.10)	.95	.83

요인구조에 따른 K-SSLE의 하위척도별 신뢰도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K-SSLE의 하위척도간 상관

K-SSLE의 하위척도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건강과 관계가 .57( $p < .01$ ), 관계와 역할이 .63( $p < .01$ ), 건강과 역할이 .63( $p < .01$ ), 건강과 경제가 .51( $p < .01$ ), 역할과 경제가 .48( $p < .01$ ), 관계와 경제가 .40( $p < .01$ ),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할상실감이 노인들에게는 관계상실감이나 건강상실감과 비교적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K-SSLE의 하위척도 간 상관은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한국노인의 상실감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건강	관계	경제	역할
건강	1	.57**	.51**	.63**
관계	.57**	1	.40**	.63**
경제	.51**	.40**	1	.48**
역할	.63**	.63**	.48**	1

\*\* $p < .01$

다른 측정도구와의 상관

K-SSLE의 타당화에 대한 작업으로 우울( $r = .50, p < .01$ ), 스트레스( $r = .58, p < .01$ ), 낙천성( $r = -.38, p < .01$ )과 관련된 측정도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표 6. 한국노인의 상실감 하위척도와 우울, 스트레스, 낙천주의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우울	낙천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 주거	스트레스 상실
건강	.47**	-.28**	.42**	.49**	.43**	.28**	.13
관계	.47**	-.33**	.61**	.47**	.36**	.32**	.22**
경제	.27**	-.24**	.28**	.30**	.57**	.24*	-.07
역할	.35**	-.20**	.31**	.28**	.31**	.20**	.08
전체	.50**			-.38**		.58**	

\* $p < .05$  \*\* $p < .01$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척도의 차이검증

		건강	관계	경제	역할
성별	남	31.82(8.61)	25.27(7.10)	17.00(4.81)	15.84(4.19)
	여	37.12(7.35)	26.67(7.02)	17.73(4.51)	15.65(4.52)
	<i>t</i>	18.16***	1.67	1.07	.079
연령	60대(1)	31.36(7.2)	24.14(5.72)	16.66(4.14)	14.13(3.17)
	70대(2)	35.79(8.33)	26.05(7.36)	17.37(4.76)	16.33(4.71)
	80대이상(3)	38.29(8.37)	28.24(7.67)	18.12(4.36)	17.73(4.53)
	<i>F</i>	3.98**	1.58	.56	3.41*
	사후검증	1a2a3b			1a2a3b
교육기간	무학(1)	39.56(6.83)	30.94(9.13)	19.29(4.03)	19.00(5.09)
	초등졸(2)	38.18(5.46)	26.58(5.59)	18.68(3.38)	16.69(4.08)
	중졸(3)	35.38(7.23)	26.36(6.83)	18.08(4.57)	15.94(3.81)
	고졸(4)	31.24(9.77)	24.96(6.82)	16.19(5.17)	14.81(4.53)
	대졸이상(5)	30.77(3.51)	22.68(7.00)	15.4(4.63)	14.53(3.80)
	<i>F</i>	6.48***	3.14**	3.58**	3.10*
	사후검증	1a2a3a4b5b	1a2a3a4b5b	1a2a3a4a5b	1a2a3a4b5b
결혼관계	기혼/동거(1)	32.97(8.71)	25.16(6.68)	17.06(4.67)	15.29(4.23)
	사별(2)	38.17(6.42)	27.79(7.54)	18.13(4.62)	17.22(4.37)
	별거(3)	33.25(8.99)	28.60(8.26)	17.40(5.86)	15.60(4.62)
	이혼(4)	37.00(.00)	23.00(5.66)	18.00(2.83)	19.00(.00)
	<i>F</i>	4.68**	1.99	.61	2.58
	사후검증	1a2b3a4a			
돈벌이	하고있다	30.63(9.15)	24.49(7.07)	17.33(4.62)	14.44(4.51)
	안한다	36.32(7.24)	26.63(6.96)	17.43(4.83)	16.57(4.05)
	<i>t</i>	19.18***	3.59	.01	9.74**
경제형편	부유한 편(1)	33.00(9.47)	24.29(8.79)	11.13(5.64)	11.00(4.47)
	보통(2)	33.25(8.51)	24.96(6.63)	16.40(4.60)	15.26(4.04)
	어려운 편(3)	36.62(8.35)	27.79(7.31)	19.71(3.19)	17.50(4.33)
	<i>F</i>	3.21*	3.37*	21.40***	10.65***
	사후검증	1a2a3b	1a2a3b	1a2ab3ab	1a2ab3ab

\* $p < .05$ , \*\* $p < .01$ , \*\*\* $p < .001$

a, b : 집단차이를 의미함

우울과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은 상실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상실감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낙천주의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상실감 척도 상관은 우울이나 스트레스 척도와는 것보다 낙천주의 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K-SSLE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K-SSLE의 하위척도와 우울, 스트레스, 낙천성과 관련된 측정도구간 상관은 표 6에 나타내었다.

####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본 척도 점수간의 관계에 대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척도점수를 비교한 결과 상실감 척도의 평균은 건강, 관계, 경제 영역에서는 여자가, 역할영역에서는 남자가 더 높게 나왔으나 건강상실감 영역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t=18.16$ ,  $df=186$ ,  $p<.001$ ). 연령이 높아지면서 각 하위영역에 따른 상실감도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건강상실감( $F=3.98$ ,  $df=2$ ,  $p<.01$ )과 역할상실감( $F=3.41$ ,  $df=2$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기간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이 많을수록 상실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기간은 건강( $F=6.48$ ,  $df=4$ ,  $p<.001$ ), 관계( $F=3.14$ ,  $df=4$ ,  $p<.01$ ), 경제( $F=3.58$ ,  $df=4$ ,  $p<.01$ ), 역할( $F=3.10$ ,  $df=4$ ,  $p<.05$ )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관계에 따라서는 건강상실감( $F=4.68$ ,  $df=3$ ,  $p<.01$ )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돈벌이에 따라서는 각 영역에서 상실감 척도의 평균은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하고 있는 경우보다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상실감( $t=19.18$ ,  $df=193$ ,  $p<.001$ )과 역할상실감( $t=9.74$ ,  $df=196$ ,  $p<.01$ )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형편에 따라서는 부유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어려운 경우 모든 영역에서 상실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F=3.21$ ,  $df=2$ ,  $p<.05$ ), 관계( $F=3.37$ ,  $df=2$ ,  $p<.05$ ), 경제( $F=21.40$ ,  $df=2$ ,  $p<.001$ ), 역할( $F=10.65$ ,  $df=2$ ,  $p<.001$ )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상실감 척도 점수간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상실감을 다룰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노인의 상실감 척도의 문항개발을 위해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검토 결과 한국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실감 영역이 건강, 관계, 역할, 경제영역임을 확인하였다. 교육상담 전공생과 교육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협의를 통해 문항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101개의 1차 예비문항을 수집한 뒤 전문가의 평정 과정을 통해 81개의 2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검사를 위해 인지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56개 3차 척도 문항을 선정하였고 2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실감, 관계상실감, 경제상실감, 역할상실감으로 구성된 최종 31개 문항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상실감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내적합치도는 .95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에서는

.81~.94로 나타났다. 또한,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문항은 .8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78~.9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는 .7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 (Nunnally, 1978)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분신뢰도는 각 하위요인의 문항을 홀수와 짝수로 나눠 살펴보는 기우법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후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반분신뢰도는 문항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짐(성태제, 1996)을 고려할 때 상실감척도의 하위요인 중 문항수가 적은 역할상실감 요인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78) 가장 문항수가 많은 건강상실감요인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93)은 예측된 결과라 하겠다.

K-SSLE의 하위척도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관계와 경제 간에 약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하위척도 간 상관은 중간정도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할상실감이 관계상실감이나 건강상실감과 비교적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와는 달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한 건강에 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이춘희, 옥선화, 1994)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K-SSLE의 타당화에 대한 작업으로 우울, 스트레스, 낙천성과 관련된 측정도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은 상실스트레스를 제외한 상실감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낙천주의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상실감 척도와 낙천주의 척도간의 상관은 우울이나 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실감 척도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 스트레스와는 수렴타당도를 낙천주의와는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상실감은 일부 성격요인 과도 관련이 있으나, 주위 상황이나 환경 같은 상황변인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에 반해 낙천주의는 시간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성(Scheier & Caver, 1992)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우울, 스트레스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상실스트레스는 본 척도의 관계영역에서의 상실하고만 낮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본 척도의 건강, 경제, 역할 상실감이 주변사람의 상실과는 무관한 영역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으로 배우자 사별과 같은 중요한 사람의 상실이 이러한 영역들에서의 상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배우자 사별경험자가 205명 중 58명이 포함 되어 있는데 부가적으로 배우자 사별과 기혼, 동거에 따른 상실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더니 경제영역을 제외한 건강( $t=-3.70, p<.001$ ), 관계( $t=-2.22, p<.05$ ), 역할( $t=-2.57, p<.05$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배우자 사별로 혼자 사는 노인이 기혼, 동거를 유지하는 노인에 비해 상실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척도점수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에서 건강, 관계, 경제 영역에서는 여자가, 역할영역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상실감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노인은 과거에 출산과 힘든 가사노동을 경험하였고, 외모가 자존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체적 노화에 따른 심리적 타격이 더 크다(김애순, 2006)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역할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노인의 경우 가정 내 역할보다는 사회적 직업적 역할에서 더욱 만족을 얻는 경향이 있었으나(김명자, 1982) 은퇴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함께 역할상실감으로 오는 부정적응현상이 생활 전반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춘희, 1993)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고령일수록 건강상실감과 역할상실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역할 상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기간이 많을수록 상실감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기간은 건강, 관계, 경제, 역할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높은 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선행연구(홍성경, 1994; Reitzes, Mutran, & Pope, 1991)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별하거나 혼자 살 경우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건강영역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건강과 역할영역에서 상실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형편은 어려울수록 모든 영역에서 상실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역할, 경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노인의 상

실감 척도는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상실의 문제들과 관련된 감정 상태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적절한 신뢰도와 수렴, 변별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척도는 한국노인 상실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상실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참여자로 해서 개발한 척도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노인을 참여자로 하는 연구들은 노인에게 접근 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변인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큰 표집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실감의 영역을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건강, 관계, 경제, 역할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영역구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상실감은 우울,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낙천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유추 해석해 보면 상실감은 부정적인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영역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사별로 혼자 사는 경우와 기혼,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건강, 관계, 역할상실감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노인들의 배우자 사별은 상실감과 부분적으로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

견된 문항들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실감을 측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실감의 각 영역을 확인해서 이에 대한 건강지원, 관계적 지원, 경제적 지원, 역할지원(일자리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활동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을 전개하는 데 활용할만하다. 이러한 개입은 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사별이라는 노년기의 중대한 상실에 대한 부분은 제외 하였는데 본 척도에서 나타난 영역의 상실감과 사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사별 상실감을 포함시켰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해 볼만하다. 본 연구의 척도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정서, 사고, 행동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권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들의 상실감을 심층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기도 지역 노인이고, 복지관 활동 등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었다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 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탐색적 요인 분석 수준의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 추후 다른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경험적 자료를 누적시켜야 척도로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개발: 자존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건강, 9, 243-269.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의 표준화에비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35(2), 298-307.
- 김기분, 이경호, 오혜경 (2001). 여성노인의 슬픔. 대한간호학회지, 31, 1021-1033.
- 김만두, 한혜경 (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 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미령 (2002). 스트레스이론의 비교 및 노인의 역할변화 연구에의 적용. 한국노년학회지, 22(2), 41-60.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5(2), 35-52.
- 김숙남 (1998). 여성의 자궁절제술 후 삶의 질 구조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연 (2006). 배우자 사별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 (2006).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영범, 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24, 169-185.
- 김정엽, 권복순 (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7, 111-130.
- 김태현 (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 (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과 생활환



- 경. 생활과학논집, 6(1), 131-141.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회지, 19, 61-81.
- 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7-32.
- 김현정, 오윤희, 오강섭, 서동우, 신영철, 정지영(2006), 긍정적 사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67-784.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2(1), 159-172.
- 네이버국어사전 (2008). 상실, 상실감. [www.naver.com](http://www.naver.com)
- 박선아 (1997). 노인정신질환자의 상실감회복을 위한 무용요법.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 71-89.
- 박미정 (2007). 간호정보 제공이 자궁절제술 환자의 지식, 상실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철 (1998).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전문적인 노인사회사업가의 역할.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2), 251-270.
- 서현미, 유수정, 하양숙 (2001). 노인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1), 94-106.
- 서형숙 (1994). 절단환자가 느끼는 상실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1996).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 성태제 (2002).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성태제 (2007).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손의성 (2006).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원 (2002). 성향적 낙관주의와 기분상태가 만성 동통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한주 (2001). 요인분석 모형의 이해와 적용: 주성분모형과 공통요인모형의 방법론적 비교.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3(1), 101-130.
- 윤진 (1993).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현희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15.
- 이미라 (2005). 애도개념개발: 배우자 사별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해 (1997). 한국의 노인문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사회조사연구, 12, 85-104.
- 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2, 1-20.
- 이철우 (2003). 한국노인의 생활불안. 한국학연구, 18, 38-67.
- 이춘희 (1993). 남자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 옥선화 (1994). 남자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가족학회지, 6, 69-101.
- 이혜원 (2004). 노인복지론. 서울: 유평출판사.
- 임인숙 (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4), 1105-1127.

- 전길양, 김정옥 (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  
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155-170.
- 전길양, 송현애, 고선주, 김일명(2000).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한국노년학회지*, 20(1),  
69-91.
- 정미경 (2006). 노인을 위한 동년배 관계향상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녀 (2006). 정서지능, 낙관주의와 정신건강과  
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 (1994). 상배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사회적 접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재, 장인협 (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순남 (1997). *한국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출  
판부.
-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 한미숙 (2005). 자궁적출술을 받은 자궁암 환자의  
상실감, 우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전북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허준수,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  
회사업*, 13, 7-35.
- 홍상욱 (1997). 노인이 인지하는 노년기 역할과  
만족도. *노인학 연구*, 창간호, 영남대 노인  
학 연구소.
- 홍성경 (1994). 정보적 지지가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의 무력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1999). 문항반응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  
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1999년도 한국 임  
상심리학회 3차 워크샵 자료집. 제주도.
- Ada, C. M. (2001).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3/4), 281-299.
- Bankoff, E. A. (199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1, 827-839.
- Bulter, R. N., & Lewis, M. I. (1982). *Aging and  
mental health(3rd)*. St. louis: C. V. Mosby.
- Fedderly, M. D. (1993). *How executives handle the  
loss of power at retir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 Thomas.
- Gruendemann, B. J. (1981). Problem of Physical  
Self Loss, In Roy, C(Ed.), *Introduction to  
nursing an adaptation model*, 129-209.
- Laditka, J. N., & Laditka, S. B. (2003). Increased  
hospitalization risk for recently windowed  
older women and protective effects of social  
contacts. *Journal of Women & Aging*, 15, 7-28.
- Lenon, B. W., Bengtson, V. L., & Per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 Morgan, D. L. (1989). Adjusting to widowhood:  
Do social networks really make it easier? *The  
Gerontologist*, 29(1), 101-107.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ett, M. A., Lackey, R. N.,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 health care resear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Reitzes, D. C., Mutran, E., & Pope, H. (1991). Location and Well-being Among Retireed Men. *Journal of Gerontology*, 46, 195-203.
- Ryff, C. D., & singer, B. H. (2000). Interpersonal flouris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review*, 4(1), 30-40.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10-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chuchter, S. R., & Zisook, S. (1993). The course of normal grief. In M.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san, D. K., & Mary, D. B. (2008).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Grief in widow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1, 23-30.
- Wong, Paul T. P. (1989). Personal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 30(3), 516-525.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원 고 접 수 일 : 2009. 2. 13

수정원고접수일 : 2009. 4.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Sense of Loss Scale for Korean Elderly**

**Jung, Mi-kyung**

**Lee, Kyu-mee**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ense of Loss Scale for Korean Elderly (K-SSLE). The 101 items were crea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s. We selected the 81 items through the professional group and the 56 items from a survey. As a result, 31 items were determined in four constructs(physical, relationship, role, economic)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The split-half reliability were acceptabl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scale, stress scale and life orientation scale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K-SSLE. Based on this scale, the four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demographic variable. Overall, the results provide K-SSLE has adequat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has potential utility for researchers of the elderly.

*Key words* : The sense of loss for Korean elderly, scale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